"우리는 원팀, 힘 모아 승리로 보답"

이재명 제안에 민주 윤호중·박지현 엿새만에 내홍 일단락
인천 이재명 캠프서 기자회견…수도권 막판 화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0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마찰음을 냈던 민주당 투톱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맞잡았다. 반면, 당장 선거 승리를 위해 표면적으로 '원팀'을 외쳤지만 경우에 따라 선거 이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단으로 걸어 나와 양손을 서로 포개는 '원팀 세리머니'를 했다.

'화해 제스처'를 보여달라는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의 즉석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 후보는 "목표는 같지만 속도와 과정에 약간의 이견이 있던 것을 이제는 한데 모아서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죠"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윤·박 위원장의 두 손에 자신의 손도 얹고는 "꽉 잡아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겠다"며 "우리는 원팀이다.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도 했다.

지난 24일 박 위원장의 단독 '대국민 사과 회견'으로 당내 갈등이 촉발된 지 엿새 만에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 후보가 '중재자'로 나선 셈이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과 개혁,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박 위원장이 제안한) 5가지 쇄신안을 반대하거나 달리 해석하겠느냐"며 "선거가 끝난 후 당 혁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내놓은 쇄신 과제들에 공감대를 표하되 세부 이행 절차는 선거 이후에 밟자는, 지난 28일 비대위 합의와 같은 메시지였다.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과의 갈등은 많이 해소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과 지지자들이 많이 염려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이라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진통을 겪었다고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도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갈등 봉합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봉하마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박 위원장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충분히 의논했다"며 지도부 갈등설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까스로 내홍을 수습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막판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인천에서 연 것은 '이재명 지원'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도권 요충지인 인천에서 막바지 표심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혔다.

이 후보는 "여전히 색깔과 지역에 따라 (후보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보다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는 게 지역과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손 맞잡은 이재명·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오른쪽)·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이슈 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
與 "이재명 고립" vs 野 "갈라치기"

권성동 "경제 허언증이 교통까지"
이재명 "철부지 악당 생떼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국면 막판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선거를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원장의 즉흥적 공약으로 제주도 산업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굳이 이 공약을 꺼내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대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형 여객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기축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제주도로 향해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 운동'을 벌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갈라치기'를 하며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방어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포공항 이전이 제주관광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라치기 조작선동을 그만하고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다.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제주 관광에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약을 비판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철부지 악당의 생떼 선동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읽어주는 선거 공보 제작·배포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가 '읽어주는 선거 공보'를 제작, 유튜브 채널 장석웅 TV를 통해 배포했다.

30일 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읽어주는 선거 공보'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남 지역에 한글을 모르는 노인 인구도 적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읽어주는 선거 공보'에는 장 후보의 이력과 재산·학력·병역 내용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특권 경쟁 교육을 막아내고자 하는 장 후보의 교육철학이 담겼다.

기초학력 보장, 미래학교 도입,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 등 이번 선거에 나서는 장 후보의 공약도 세밀하게 담겼다.

장 후보는 "글을 모르는 전남의 어르신들과 시각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읽어주는 선거 공보'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들의 살아온 이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올바른 투표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장없는 국회…후반기 원구성 험로 예상

여야 법사위원장 등 첨예 대치

21대 전반기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30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국회 공백이 시작됐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쟁점을 놓고 벌써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 후 전례에서 보기 드물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지만,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처리 후 기자들에게 "작년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인 당시 합의를 번복했듯 민주당도 굳이 기존 합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여기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준 마당에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면 주요 이슈마다 여당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하반기 국회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가 공백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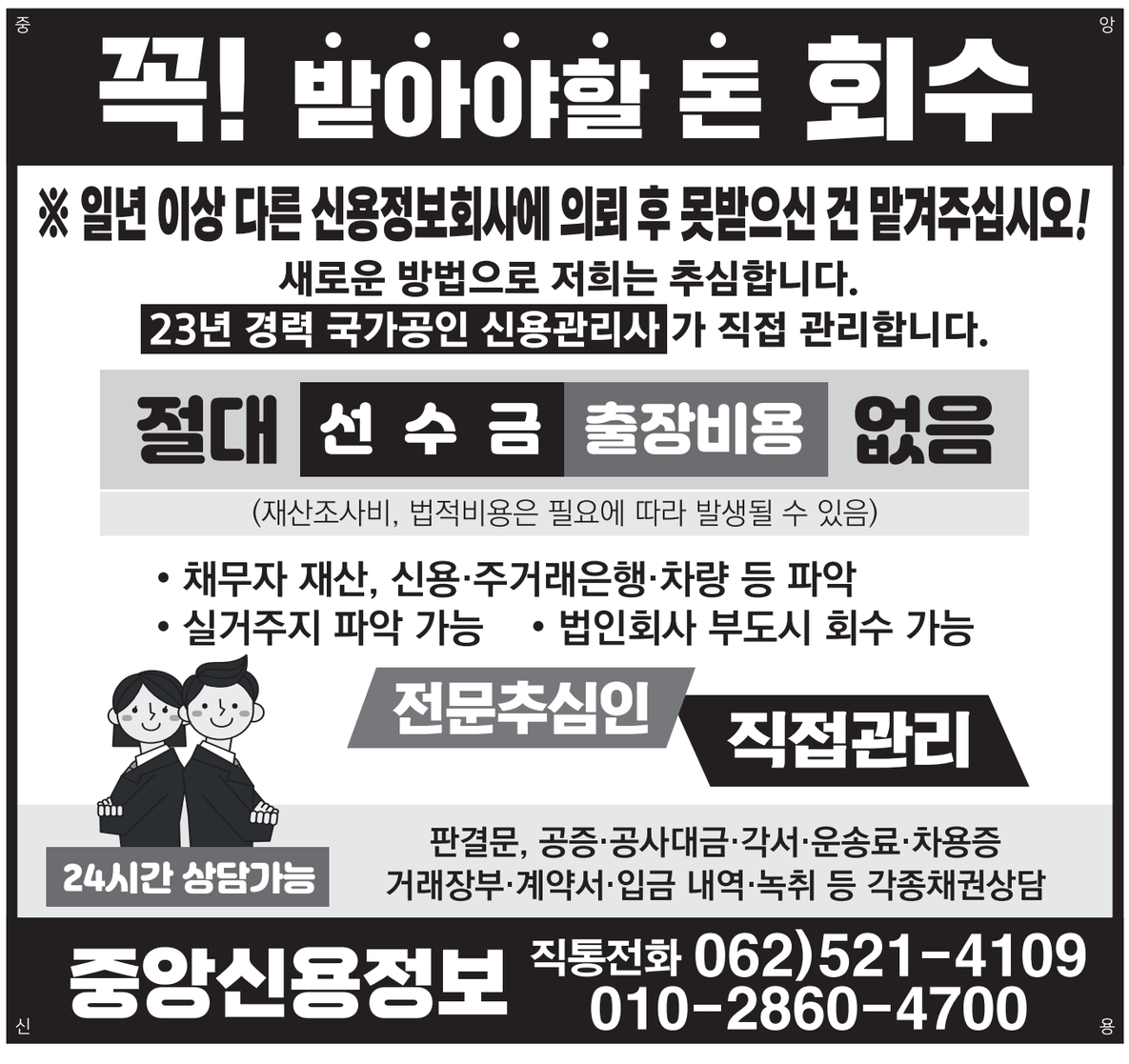
민주당, 故 정동년 이사장 추모…빈소 찾아 조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故)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추모했다.

시당은 "고인은 오월의 통합과 혁신, 도약을 꿈꿨다"며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전환기를 맞아 갈등 봉합에 나섰고, 오월 정신의 확산을 위해 재단의 어려운 운영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월의 찬란한 미래를 꿈꿨던 고인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유지를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진상규명과 오월 정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사무총장과 서삼석 사무부총장이 당을 대표해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후 정 이사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광주를 찾아 고(故)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빈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른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헌화한 뒤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